漁港消息

발행겸 편집인 孫井植
인쇄인 金在克
韓國漁港協會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05-9
TEL. 568-6651~3
FAX. 568-6653
月刊 : 비매품
등록번호 : 라3459
등록일 : 1988년2월19일

會訓
● 誠實 ● 奉仕 ● 創意

漁港은 우리 漁民의 永遠한 어머니 품

농어촌발전위원회에 어항 懸案 제기

어항어촌 총합개발계획 수립
지정항확대 예산증액등 건의

한국어항협회서 국토균형개발차원 지적
기술개발·조사활동 강화도

한국어항협회는 3월 17일 「21세기를 향한 어항어촌종합개발방향과 현안과제」를 농어촌발전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어항협회는 이 자료에서 우리 나라 수산업과 어항어촌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를 재조명하고 UR협상타결에 대비,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외 소득증대, 국토균형개발의 차원에서 어항어촌의 총합적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활력있고 쾌적한 어항어촌을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정항의 대폭 확대와 신규지정항의 과감한 개발, 어항개발 및 정비예산의 대폭적인 증대를 요청했다.

한국어항협회는 이와함께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활동의 강화와 설계감리업무의 전문기관 이양, 그리고 어항관리전담기구 신설도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農發委」에 기대한다

어항개발 강화 好機

마침내 힘찬 출항의 닻은 올랐다.

지난 2월 23일, 한국어항협회가 특수법인 전환을 위한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끝마침으로써 어항인에 대한 위상 정립과 아울러 어항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게 되었다.

물론 한국어항협회가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우리 나라 어항의 모습이 현격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어항협회, 나아가 우리 나라의 어항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대한 동기가 이번 총회를 계기로 부여되었다는 사실이다.

기회란 그렇게 자주 오는 법이 아니다. 그리고 한번 기회를 놓치면 여간해서는 다시 그것을 잡기 어려운 속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한국어항협회는 항구적 발전이냐, 아니면 퇴보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는 셈이다.

따라서 우리 어항인 모두는 무엇보다도 우선 새로운 의욕과 각오로 새출발하는 협회가 특수법인으로서의 임무를 다하여 우리 나라 어항 발전의 신기원을 이룩할 수 있도록 배전의 격려와 협조, 참여를 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가끔 원론보다는 각론에, 내실보다는 명분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UR협상 타결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것이 우리 나라의 농수산업에 미칠 영향이 심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폐해만 가지고 들고 일어설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대책도 미리 나왔어야 마땅했다.

그런 토양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장이란 자칫 한갖 푸념이나 메아리 없는 외침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국제화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이 모두 한 길을 걷고 있는 마당에 우리만이 다른 길을 걷겠다고 고집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어항의 현실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 열악함의 정도는 우리 어항인이 누구보다 가장 확실히 체험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지경에 이른 현실을 자탄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사실이다.

다행히 정부차원에서 향후 10년간 15조원을 마련, UR협상타결에 대한 대책으로 농수산분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집중투자할 계획을 비추어 볼 때 한국어항협회의 특수법인 출범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볼수 있다. 이와함께 어항기술 개발 및 조사연구와 올바른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어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배려도 있어야 하겠다.

한국어항협회는 특수법인으로 새출발하는 의미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보다 원대한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지금 협회앞에 산재된 과제는 너무나 많다. 우선 시급한 것은 협회 기구를 개편하고, 단계적으로 인력을 증원하여 앞으로 크게 늘어날 업무에 대처하는 일이다.

또한 협회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할 시금석이 될 용역사업을 보다 활발히 추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 용역사업은 이미 설립되어 가동중인 어항어촌개발연구소를 국내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활용한다면 우리 나라의 어항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21세기를 향한 어항어촌종합개발이란 심도 깊은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협회의 위상이 대내외에 더욱 공고해질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어항인을 자처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뿌리, 다시말해 우리 나라 어항의 역사에 관해서는 별로 아는 것도, 근거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 역시 차제에 꼭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이에따라 협회에서는 우리 나라의 어항사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어항사를 편찬해낼 계획이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어항의 바이블(성경)이 될 것이 분명하며, 어항인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확신한다.

바로 이 모든 것이 특수법인으로 전환한 협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다. 게다가 이런 사업들을 펼친다고 해서 기존 사업들을 소홀히 할 수 없음은 너무도 당연한 논리이다. 오히려 과거보다 한층 깊이 있고, 내실있는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만이 특수법인이란 공공단체로서의 사명과 의무를 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협회의 역량이 아니라 어항인 개개인의 단결이다. 하나의 힘은 부족하지만 열의 힘은 강하기 때문이다.

힘차게 출항의 닻을 올린 지금, 우리가 목표한 바로 그곳, 이상 어항을 향하여 특수법인 한국어항협회가 순항할 수 있도록 어항인 모두 가식의 옷을 벗고 진실된 알몸을 서로서로 보이며 진정으로 함께 노력해야 할 지금이다.

焦点

UR대응 사회간접시설 확충은 "的中시책"
漁港界 뭉쳐 실현 앞당겨야

94어항공사집행계획 순조
대상 56개항중 37곳 설계를 완료
수산청은 올해 총 5백65억원의 사업비로 소흑산도 등 56개 어항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수산청이 마련한 어항공사집행계획에 따르면 소흑산도를 비롯 어청도 수산항 등 3개 거점항과 안마 녹동항 등에 방파제 물양장 등 부족한 어항시설을 연말까지 크게 늘려 태풍에 대비하고 어선 접안을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수산청 동·서·남해어항사무소는 태풍기 이전에 어항공사의 주요공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설계서작성 및 계약업무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수산청에 따르면 올해 56개항(57건) 공사중 3월 23일 현재 37개항이 설계완료 되었으며, 지난 19일 신수항이 착공된데 이어 20개항이 계약요청중에 있어 예년에 비해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다.

부실공사 방지강화
현장중심 대책철저

정부는 행정규제 완화의 효과가 조속히 일선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금년중 규제완화와 관련된 법령정비를 마무리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현장중심의 철저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건설부는 최근 김영삼 대통령이 주재한 신경제 추진회의에서 건설분야 공직자의 의식개혁전략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설부는 규제완화가 일과성이 아니라 체질화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대책반을 매일 운영하고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품질관리 향상
선진국 수준엔 미흡

수산청은 어항공사의 기술수준향상과 품질관리를 위해 93년도 어항시설 공사중 17개항에 대한 시공평가를 실시했다.

수산청이 실시한 93년도어항시공구간 시공평가에 따르면 기술수준 및 품질관리 등이 해를 거듭할수록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UR협상타결에 따른 건설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특세」재원 어항건설 확대 건의
수산청, 「농발위」 3차산업진흥소위 참석

수산청은 9일 농어촌발전위원회 제3차산업진흥소위원회 회의에 참석, 어항건설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농특세재원에서 어항건설부문에 투자를 대폭 확대해 줄것을 요청했다.

수산청은 이날 회의에서 어항시설은 여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비해 개발이 지연, 수요에 크게 못미친다고 설명하고 이로인한 어선피해가 연례적으로 발생함은 물론 어항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산청은 이에따라 어항이 사회간접자본시설임을 감안, 종합기능시설을 겸비한 어촌정주생활권의 핵으로서 발전될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세기를 향한

어항어촌 개발방향과 현안

한국어항협회가 농어촌발전위원회에 제시한

어항어촌을 활력있는 정주권으로

국토균형개발 보전차원서 개발

해안도로 연계등 종합계획수립

일반국민의 해양에 대한 욕구에 부응

21세기를 향한 어항어촌 개발 방향

수산업과 어항어촌의 동향

우리 나라 수산업은 그동안 경제발전과 더불어 수산대국으로 성장했으나 200해리 체제의 정착에 따른 연안국의 어장규제 강화,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연안어장 오염, 노동력 부족 등의 난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UR협상타결로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 홍수같이 쏟아질 외국 수산물의 유입으로 우리 나라 수산물은 가격 경쟁력 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여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에서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건강하고 풍부한 식생활을 유지하고, 밝고 살기 좋은 쾌적한 어항어촌을 조성,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 주변의 해안환경 이용을 극도로 높이고 국민의 수산물 기호 다양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긴요합니다.

최근 국민소득증대에 따른 여가선용 경향이 높아짐에 따라 각종 해양성 레크리에이션과 신선한 수산물을 찾아 도시민이 어항어촌으로 모여들고 있어 관광개발과 어업외 소득증대 차원에서 어항어촌의 종합적 개발정비 대책이 절실합니다.

한편 자연지향 건강지향의 추세에서 바다에 매력을 느끼는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여 도·농·어간의 만남의 장, 국제교류의 장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어항어촌을 새로운 관점에서 정비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항어촌의 실태

一。어항어촌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낙후, 어민소득은 도시와 농촌에 비해 저위

一。자원감소, 연안오염 등으로 생산량 저하와 UR협상타결로 인한 장래불안 및 생산의욕 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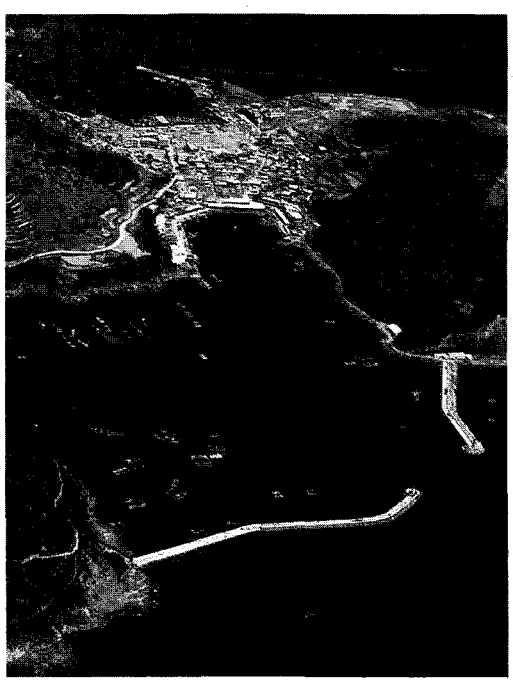
一。정부 재정의 과소지원으로 어항이 기본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지역간 소득격차, 생활환경 낙후로 이어 현상이 가속화(82년 : 4.4%, 92년:7.8%)되고 어촌지역은 황폐화

一。방파제, 물양장 등 기본시설의 투자마저 미흡하여 개발수요에 크게 못미칠 뿐아니라 대부분의 어항에서는 기능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일본과의 비교

('93. 12)

구 분	(어항예산)/(수산예산)	평 균 항간거리	개 발 정 도
일 본	60%	11㎞	기본시설 완공(1970년) 제9차('94~'99) 어항정비계획 사업 추진 (총사업비 : 3조 4,000억엔)
한 국	17%	31㎞	방파제, 물양장 등 기본시설 단계



一。어항개발 부진과 항간거리가 멀어 어민의 위협부담 출어경비 가중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어선피해는 연평균 1,363척(3,838백만원)이 발생

一。어항의 역할중 가장 중요한 어촌지역사회의 핵으로서의 역할이 전혀 무시된 개발전략을 추진해옴으로써 어항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어촌사회가 낙후

어항 현황

('93. 12)

항 종	항 수	개발률	어선안전수용률
제1종어항	50	60.0%	22.7%
제3종어항	33	54.5%	
제2종어항	324	37.3%	3.2%
계	407		

※ 자연포구 등 소규모 어항 1,580개

현안과제

一。어항어촌은 2000해리 수역관리의 모체이고 해안지역 산림, 농지 등 국토 보전에 따르는 역할의 증대

△어항어촌은 경제사회에서 어항어촌을 관광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리조트화 하는 등 어업외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一。국토보전과 어항어촌의 개발

△어항어촌은 2000해리 수역관리의 모체이고 해안지역 산림, 농지 등 국토 보전에 따르는 역할의 증대

△해양분할 시대를 맞이하여 해양자원 관리, 해양환경보전, 해안구조 등 해양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이며, 수산업 진흥뿐만 아니라 국가적 견지에서 연안지역 낙도 벽지 등 종합적 어항어촌 개발정비가 필요

△국토 균형개발 차원에서 어항 복합 기능시설, 어항 배후지 개발, 해안도로 건설 등 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지역간 격차해소

一。쾌적한 어항어촌 건설을 위한 신기술의 개발 연구

△어항어촌 건설은 안전성, 기능성, 쾌적성 등 질적 수준의 향상과 자연 사회 역사적 조건 등 지역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추진

△표사 통제기술, 깊은 수면에서의 어항건설 기술, 어항어촌의 환경개선계획 건설 기술, 어항어촌건설에 필요한 새로운 재료, 기술 시스템 등 어항어촌건설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의 조사연구를 강화

△어항시설 규모의 확대에 따른 합리적 기술적 대처와 효율적 어항관리를 위해 설계 감리업무의 전문기관 이양과 어항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

현안과제

一。어항어촌의 종합적 장기개발계획 수립

어항이 수산업의 종합적 다기능 역할과 지역사회 및 국내외 정세에 부응키 위해 어촌지역 사회의 핵, 관광 친수성 레저 단지, 도·농·어간의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쾌적하고 활력있는 어항어촌으로 개발

一。지정항 대폭 확대와 신규 지정항의 과감한 개발

우리 나라 연안에 분포되어 있는 지정항은 407개로서 항간 평균거리가 31㎞(일본 11㎞)나 되어 어업경영을 어렵게 하고, 기상악화시 어선의 안전 대피가 곤란하여 막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어촌정주환경개선 및 전국어항어촌 균형개발을 위하여 지정어항을 단계적으로 계속 확대하되 우선 635개(항간거리 20㎞)로 확대하는 한편 신규지정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과감한 개발이 긴요

一。어항개발 및 정비예산의 대폭 증대

어항은 이제 종래의 단순기능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사회 발전의 핵심적 기반으로서 국민건강과 정서함양 그리고 어업외 소득증대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점을 고려, 국토균형개발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차원에서 어항예산을 수산예산의 최소한 40%(94년기준 1,654억원)이상 확보를 요망(94년도 15% 수준)

一。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활동의 강화

어항은 그 소재 위치와 구조물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이 수반되는 분야이므로 합리적인 개발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수리학적 문제에 대한 계획기술 및 시공기술의 연구와 구조물의 기초지반에 관한 각종 역학적 특성의 연구 등으로 안전성과 기능성 및 경제성이 보장되는 어항건설을 기술적으로 뒷받침

一。설계 감리 업무의 전문기관 이양

전문 기술분야는 일반행정체계에서 분리, 전문기관에 위임 위탁하는 것이 현대 행정의 추세이므로, 어항부문의 단위시설투자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 기술적 대처를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

一。어항관리 전담기구 신설

어항기능의 다양화 세분화 등 어항을 둘러싼 주변정세에 부응하고 쾌적한 환경유지와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완공항의 철저하고도 효율적인 관리가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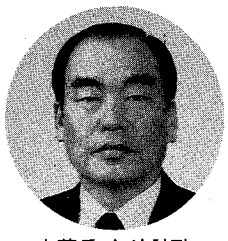
관광 레저시설 겸비 어업외소득원 발굴

도·농·어, 국제교류의 장으로 면모쇄신

(3면에 계속)

動靜

▲이희수 수산청장은 3월 3일 제28주년 개청기념식을 갖고 그동안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 6일부터 13일까지는 북경에서 열린 제3차태평양연안국수산회의에 참석차 출장, 15일에는 러시아 극동어업생산공단 모스칼초프 총재의 내방을 받고 양국 어업현안사항을 논의, 16, 17양일간은 전남 영광 완도 고흥지역 일선 어촌계를 방문, 어민과의 대화를 갖고 현안사항을 청취, 18일에는 양양내수면연구소 야외사육지에서 산유통 개혁에 관한 정책협의회에 참석.



李羲秀 수산청장

▲이방호 수협중앙회장은 3월 3일 농어촌발전위원회에 참석.

▲하성환 한국어선협회장은 3월 17, 18양일간 삼천포 충무 마산지부를 순시하고 어선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2월 28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문민정부 1년의 정책과 개혁」에 참석, 3월 8일에는 경제기획원을 방문하고 현안업무를 협의, 12일에는 수협중앙회 장 내방을 받고 환담, 17일에는 농어촌발전위원회 완공항의 철저하고도 효율적인 관리가 시급

▲박광훈 수산청차장은 3월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물가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가공시스템을 갖춘 위생적이고 수준높은 수산식품 생산 처리 기지로서 개발

△200해리 조업수역에서 자원 관리형 어업의 전개에 따른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재배어업의 센타로서, 전국의 어항어촌을 수산업 거점기반으로서 개발이 절실한 과제

△수산업 뿐만 아니라 어촌 지역사회의 산업 기반 정비의 관점에서 어항어촌을 재인식

一。일반 국민의 해양에 대한 욕구와 어항어촌의 역할

△수산업은 자연 의존형 산업이므로 아름다운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으로 자원의 유지 함양을 시도

△국민 소득 수준 향상, 여가의 증대 등은 해양성 레크리에이션의 욕구를 증대시키므로, 해양 이용 관리의 기반으로서 어항어촌은 해양교육의 장, 도·농·어간 혹은 국제교류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

△다양화되는 경제사회에서 어항어촌을 관광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리조트화 하는 등 어업외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一。국토보전과 어항어촌의 개발

△어항어촌은 2000해리 수역관리의 모체이고 해안지역 산림, 농지 등 국토 보전에 따르는 역할의 증대

△해양분할 시대를 맞이하여 해양자원 관리, 해양환경보전, 해안구조 등 해양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이며, 수산업 진흥뿐만 아니라 국가적 견지에서 연안지역 낙도 벽지 등 종합적 어항어촌 개발정비가 필요

△국토 균형개발 차원에서 어항 복합 기능시설, 어항 배후지 개발, 해안도로 건설 등 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지역간 격차해소

一。쾌적한 어항어촌 건설을 위한 신기술의 개발 연구

△어항어촌 건설은 안전성, 기능성, 쾌적성 등 질적 수준의 향상과 자연 사회 역사적 조건 등 지역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추진

△표사 통제기술, 깊은 수면에서의 어항건설 기술, 어항어촌의 환경개선계획 건설 기술, 어항어촌건설에 필요한 새로운 재료, 기술 시스템 등 어항어촌건설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의 조사연구를 강화

△어항시설 규모의 확대에 따른 합리적 기술적 대처와 효율적 어항관리를 위해 설계 감리업무의 전문기관 이양과 어항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

현안과제

一。어항어촌의 종합적 장기개발계획 수립

어항이 수산업의 종합적 다기능 역할과 지역사회 및 국내외 정세에 부응키 위해 어촌지역 사회의 핵, 관광 친수성 레저 단지, 도·농·어간의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쾌적하고 활력있는 어항어촌으로 개발

一。지정항 대폭 확대와 신규 지정항의 과감한 개발

우리 나라 연안에 분포되어 있는 지정항은 407개로서 항간 평균거리가 31㎞(일본 11㎞)나 되어 어업경영을 어렵게 하고, 기상악화시 어선의 안전

평가 : 대통령의 리더쉽에는 수산청을 방문하고 8일에는 경제기획원을 방문하고 현안업무를 협의, 16일에는 왕기용 신임원양협회장 내방을 받고 환담, 17일에는 한국어항협회 춘계학술대회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차원에서 어항예산을 수산예산의 최소한 40%(94년기준 1,654억원)이상 확보를 요망(94년도 15% 수준)

一。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활동의 강화

어항은 그 소재 위치와 구조물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이 수반되는 분야이므로 합리적인 개발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수리학적 문제에 대한 계획기술 및 시공기술의 연구와 구조물의 기초지반에 관한 각종 역학적 특성의 연구 등으로 안전성과 기능성 및 경제성이 보장되는 어항건설을 기술적으로 뒷받침

一。설계 감리 업무의 전문기관 이양

전문 기술분야는 일반행정체계에서 분리, 전문기관에 위임 위탁하는 것이 현대 행정의 추세이므로, 어항부문의 단위시설투자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 기술적 대처를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

一。어항관리 전담기구 신설

어항기능의 다양화 세분화 등 어항을 둘러싼 주변정세에 부응하고 쾌적한 환경유지와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완공항의 철저하고도 효율적인 관리가 시급

올해를 부실공사 추방 원년으로 설정

공사품질 최고 풍토 조성

공사자료 전산관리 부당하도급 방지도

감사원

올해를 부실공사추방 원년으로 선포한 감사원은 업계에 직접 뛰어들어 향후 부실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방향을 설명하는 등 부실공사에 대한 강력한 추방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근 업계의 공사감리 방향 설명회에 참석한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 부실시공업체와 관계공직자를 완전추방하는 동시에 공사품질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건설여건 및 풍토조성에 감사원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감사대상공사자료를 체계화하여 전산관리 △입력자료의 상시검토 및 분석체계구축 △제한된 감사인력을 시공분야에 집중투입 △저가입찰공사, 보증시공공사, 부당하도급공사 등을 감사대상공사로 선정, 특별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공사 및 설계용역 등의 예산편성, 입찰 계약 감독 감사 대금지급 건설기술관리 등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분석 개선하는 동시에 업계의 건의와 의견을 적극 수용, 제도개선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준공검사제도 획기적으로 개선, 지금까지 물량확인을 위주로한 계약이행여부 확인 목적에서 품질확인을 위주로 시공평가개념으로 전환하고 준공검사 전문기관에 의한 준공검사 방안을 마련하고 시공평가 결과에 따라 상응한 우대조치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現說참가기준완화 공공시설공사입찰

그동안 일정한 기준이 없어 과다제한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았던 공공시설공사에 대한 현장설명 참가자격기준이 크게 완화되었다.

조달청이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토목·건축공사(조경, 기계포함)의 경우 예정금액기준 5백억원이상은 기술사, 2백억원이상 5백억원미만은 기술사 또는 기사 1급 자격취득후 해당분야 10년이상 종사자, 50억원이상 2백억원 미만은 기사 1급이상, 50억원미만은 기사 2급이상으로 설정해 업계의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1백억 미만 최저가 입찰때 복수 예정가를 작성

정부는 1백억원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제한적 최저가입찰의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기초금액의 상하 1% 범위내에서 2~5개의 복수예정가격을 작성, 입찰장소에 비치하되 예정가격은 이들 복수예정가격간의 폭을 최대한 크게 두도록 했다.

또한 낙찰자를 선정하기전에 입찰참가자중에서 1인을 선정, 복수예정가격중에서 하나를 추첨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복수예정가격은 낙찰자가 선정된후 즉시 모든 입찰자앞에서 공개토록 했다.

설계 내역서를 전산디스켓으로

정부시설공사 현장설명 및 입찰집행시 배부 또는 제출하는 설계(입찰) 내역서가 앞으로 인쇄물에서 전산디스켓으로 개선된다.

조달청에 따르면 정부공사 현장설명시 인쇄물로된 설계내역서 대신 자동계산이 가능한 전산디스켓으로 배부토록하고 입찰참가자는 이 디스켓 내용에 공종별 단가를 입력해 입찰금액을 자동계산함과 동시에 내역을 출력(프린터), 입찰서에 첨부, 제출토록 했다.

항만공사감리공단 설립

정부는 항만공사의 안전시공을 책임지게 될 항만공사감리공단이 설립됐다.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항만공사의 감리업무를 철저히 하기위해 (주)한국항만건설감리공단을 새로 설립, 항만분야 감리업무를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이 감리공단은 항만청 산하기관인 컨테이너부두공단이 30억원을 출연, 인력확보와 설립절차를 완료했으며 지난 18일 건설부에 등록 신청을 했다.

해항청은 등록절차가 완료되는대로 이 감리공단을 올부터 발주되는 50억원이상의 대형토목공사중 특히 항만분야를 전담 감리토록 중점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2면에서 계속〉

설명, 이날 오후에는 한국수산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참석, 18일부터 20일까지는 경주에서 열린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고위경제과정에서 주최한 「UR이후 산업정책 및 기업전략」 세미나에 참석.

▲배환갑 영생건설주식회사 회장은 3월 10일 팔각회 총회에 참석, 14일에는 기독교 원로장로회 임원회의에 참석.

▲최상욱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3월 9일 여성갱생보호위원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 11일에는 광주전남 사회진흥단체장간담회에 참석, 12일에는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제1기 최고경영자과정에 입교, 18일에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상임위원회에 참석, 19일에는 SBS배 검도대회에 참석.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3월 8일 한국정치발전연구회 토론회에 참석, 23일에는 충남출신 공직자를 위한 만찬에 참석.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장)은 3월 2일 부실공사방지대책위원회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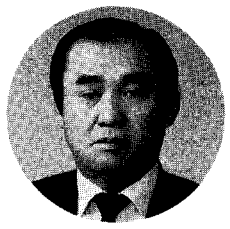
▲송재성 주식회사성호 회장은 3월 17일 업무차 여수 삼천포출장.

당선

李方鎬 수협중앙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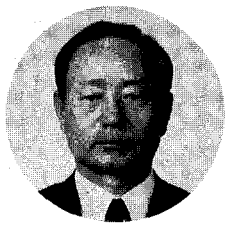
▲이방호 수협중앙회장은 3월 19일 실시된 차기 수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총 80표중 74표를 얻어 압도적으로 재선됐다.

기금기탁



高濟哲 회장

▲고제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3월 9일 한국어항협회발전기금으로 1천만원을 쾌척했다.



黃今秋 사장

▲황금추 동광건설주식회사 사장은 3월 7일 협회발전기금으로 1천만원을 쾌척했다.

주소변경

▲주식회사우주종합건설은 3월 7일 서울 사업본부를 서초구 서초동 1675-13(영일빌딩 3층)으로 이전했다. 전화: 586-1464-9.

▲구청서씨(주식회사삼건사 전무이사)는 최근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65-8 잠원 한신그린아파트 A동 808호로 주소를 변경했다. 전화 : 532-4880.

▲이홍식씨(중앙대학교 교수)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17 탑마을 벽산아파트 605동 1302호로 주소를 변경했다. 전화 : (0342)706-2181.

화촉

▲조남욱씨(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의 장남 승연군은 3월 10일 공항터미널 컨벤션센타에서 화촉을 밝혔다.

▲김종철씨(수산청 생산국장)의 장녀 지연양은 3월 12일 천주교 양재동 성당에서 화촉을 밝혔다.

▲김종희씨(한국수산신보사 출판실장)의 차남 덕균군은 3월 30일(수) 오후 1시 서울대 동창회관에서 화촉을 밝힌다.

회비납부

▲박광훈씨(수산청 차장)
▲임종국씨(수산청 어정국장)
▲이상철씨(전 대성특수제지 사장)
▲안창수씨(법제처 법제기획관)
▲이창기씨(전 수산청 과장)
▲차상희씨(제네랄델리카서울지점장)
▲고덕봉씨(한국어선협회 전무이사)
▲백운영씨(신일학원 이사장)
▲이신복씨(대한어망공업협회 전무이사)
▲김종규씨(수산청 어선과장)
▲조우연씨(수산청 총무과장)
▲오진수씨(수산청 시설과장)
▲박희열씨(수산청 제조과장)
▲기호준씨(수산청 원양개발담당관실)
▲이전호씨(수산청남해어항사무소장)
▲김기옥씨(수산청남해어항사무소 공사과장)
▲이경희씨(수산청남해어항사무소 관리과장)
▲손승렬씨(수산청남해어항사무소)
▲최재학씨(수산청남해어항사무소)
▲임인규씨(수산청남해어항사무소)
▲김익중씨(주식회사도화종합기술공사 이사)
▲전정진씨(수협중앙회석촌동지점장)
▲이희수씨(수산청장)
▲김기홍씨(수산청 과장)
▲이용숙씨(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산청 파견관)
▲정대연씨(주식회사대영엔지니어링 이사)
▲임무성씨(삼익건설주식회사 회장)
▲유영해씨(리인터내셔날부장)
▲주홍장씨(한국원양어업협회 상근부회장)
▲김일제씨(주식회사 범신기획 회장)
▲박정태씨(수산청서해어항사무소장)
▲김기수씨(인간문화재)

부음

▲이존양씨(수산청 어선과 어선2계장)는 2월 26일 부친상을 당했다. 장지는 전주시 효자동 전주성결교회묘지.

국내 技術用役業體의 선두주자 ——

都和가 엔지니어링 尖端技術時代를 열다

營業分野

· 港灣 및 海岸 · 造景
· 上下水道 · 環境
· 水資源開發 · 交通計劃
· 鐵道 및 地下鐵 · 道路 및 橋梁
· 都市計劃 및 團地設計

經營陣 및 技術者

會長 : 郭永駜(上下水道)
副會長 : 崔奭柱(港灣 및 海岸)
社長 : 金永潤(上下水道)
技術士 : 港灣 및 海岸分野 等 49名

(株) 都和綜合技術公社
DOHWA ASSOCIATED ENGINEERING SERVICES. LTD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40-6 도화빌딩. TEL. 541-2201~10. FAX. 545-6050

어·항·교·실

漁港計劃樹立의要領

〔55〕

冷凍 冷藏施設 用地

시설면적의 산정

냉장고의 수용능력이 결정되면 이것을 근거로 소요면적을 산정하게 된다.

그 일반적인 절차는 표1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①의 수용능력은 냉장고 규모(수용량)의 결정에 의해서 구한 숫치이다.

②의 단위당 수용량은 냉장고 단위용적당의 수용량을 말한다. 표2와 같이 수용하는 종류,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0.4톤/m³(2.5m³/톤)을 사용한다.

③의 냉장고의 유효 수용량은 어종, 형태, 하역 방법, 건물의 층수, 냉장고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5m정도가 많다.

④의 여유라는 것은 실제로 보관물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 이외의 것을 말하며 냉장실내의 통로, 하역을 위한 공간이나 기계실, 전기실, 동결실, 준비실, 사무실 등의 시설이 여기에 해당한다. 냉장실 통로 등의 여유는 보통 20%정도, 기타 시설에 있어서는 냉장실의 40~50%비율이 필요하게 된다.

이상의 절차에 의해서 냉장고의 면적은 다음의 식에서 구할 수 있다.

$$\text{냉장고의면적}(m^2) = \frac{\text{수용능력}(t)\times 2.5(m^3/t)\times 1.2\times 1.5}{\text{유효 수용량}} = 4.5\times\frac{\text{수용능력}}{\text{유효수용량}}$$

여기서

1.2 : 통로 등 냉장고내의 여유

1.5 : 기계실, 동결실, 전기실 등의 여유

소규모 냉장시설에 있어서는 통상 인력에 의해서 하역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 경우는 높이가 2m정도 되므로 위식은 냉장고 면적(m²)=2.25×수용능력(t)으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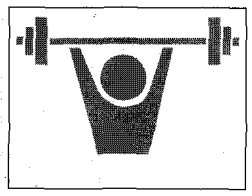
① 수용능력 → ② 단위당 수용량 결정 → ③ 냉장고 유효 수용량 결정 → ④ 여유검토 → ⑤ 냉장고 면적

〈표1〉 냉장고 면적의 산정절차

〈표2〉 품종별 수용중량표

品名	荷姿	縱×橫×高 cm	容積 $10^{-3}m^3$	正味重量 kg	荷掛重量 kg	個數 個/m³	kg/m³
赤魚	보루箱	37×58×8	17	10	11	58.4	642.4
鯨肉	〃	30×43×15	19	17.5	19	52.6	999.4
〃	〃	30×40×16	19	18	19.5	52.6	1026.7
문어	樽	41×41×39	69	18	33	15.1	498.3
문어	보루箱	37×62×15	34	30	31	29.0	870
가자미	〃	35×64×8	18	15	18	55.5	999
〃	〃	37×59×8	17	13	16	55.5	888
청어	〃	35×64×8	18	12	13.2	55.5	732.6
대구	〃	38×59×8	18	10	13.5	55.5	749.2
꽁치	木箱	32×50×10	16	7.5	8.5	62.5	531.2
새우	보루箱	30×44×25	43	18	245	23.2	575.6
大正새우	〃	34×45×19	30	24	—	33.3	799
깐새우	〃	26×35×24	22	12	14.5	45.4	658.3
연어	〃	38×61×7.5	17	10	12	58.3	705.6
〃	木箱	39×73×12	34	20	26.5	29.4	779
송어	〃	38×60×9.5	22	10	12.2	45.4	554
고등어	〃	37×57×9	20	10	11.5	50.0	575
오징어	〃	21×49×9	16	7.5	9	71.4	643.6
紋甲오징어	보루箱	30×36×12	12	10	12	83.3	833
게	〃	27×38×26	27	12	15	38.3	574.5
貝柱	〃	35×41×22	32	13.5	14.8	31.2	737
성게	樽	50×50×49	113	50	55	8.9	489.5
오징어鹽辛	〃	30×30×27	24	10	11.2	41.6	465.9
筋子	〃	35×35×20	25	10	12	40.0	480
煮干	보루箱	35×55×25	48	12	—	28.3	340
竹輪	〃	29×61×16	28	15	17	35.1	612
조미품	木箱	35×50×34	60	16	20	15.1	302
빙어	〃	27×54×33	55	15	—	18.5	278

비만증



(신장-100)×0.9…20%초과 비만증

저칼로리식사·지속적인 운동 치료에 도움

근자에 한국에서도 산업화에 따른 경제발전으로 식생활이 개선되고 생활양식이 편리해짐에 따라서 비만증의 환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발생빈도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구미선진국의 통계자료를 보면 남자의 30%와 여자의 40%가 비만증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만증은 섭취하는 열량 중 소모되고 남는 부분이 지방으로 전환되어 체내의 여러부분 특히 피하조직과 장간막에 축적되는 현상으로 일종의 질병으로 보고 있다.

비만환자는 열량이 높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운동을 별로하지 않아서 올수 있지만 과음을 자주하면 비만증이 되기 쉽다. 알코올 1cc에 7칼로리의 열량이 나오므로 술을 먹을 때 안주를 많이 먹거나 밥을 먹으면 잉여 열량이 비만증의 원인이 된다.

또 여자에서는 임신중이나 출산후에 입맛이 좋아서 많이 먹으면 비만증이 되기 쉽다. 산모는 출산후 1일 600~1,200cc의 젖이 나오는데 모유를 먹이면 400~800칼로리가 젖으로 소모되나 인공수유를 하면 식사량을 줄이지 않는 한 이 열량이 지방으로 저장되어 비만해지기 쉬우므로 모유를 먹이는 게 좋겠다.

비만증은 이상체중을 기준으로 한 환자의 체중과다의 정도를 말하는데 간단한 이상체중 산출법은 (신장-100)×0.9의 공식으로 얻는다. 이상체중보다 10~20% 범위를 초과하면 과체중이라고 20%이상 초과하는 경우를 비만증이라고 한다.

비만증의 치료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및 수술요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체중의 감량속도는 1주일에 0.5~1kg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비만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당질식품(밥, 떡, 아이스크림, 과자류 등)과 지방질이므로 이들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다. 한편 열량이 적은 채소나 과일은 어느정도 자유롭게 섭취해도 된다.

또한 운동요법은 비만증환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지혈증을 교정하여 동맥경화증의 예방에도 좋은 영향을 주며, 각자의 취미에 따라서 하루에 30분내지 1시간씩, 걷기, 뛰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을 하되 지속적으로 서서히 운동을 하면 저장지방이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비만증 치료에 효과적이다.

비만증의 합병증에는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증,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 퇴행성관절염, 중풍, 담석증, 지방간, 간경변증, 신장염, 임신중독, 분만증 등이 있으며 사망률도 정상인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비만증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일단 정상체중에 도달한 후에도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식사조절과 적절한 운동을 하여야 한다. 1주일에 1~2회씩 체중을 측정하여 체중의 변동에 따라서 식사량과 운동량을 조절하도록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생활법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안내

판매계약서 받아도 철회 가능

허위광고는 3년이하 징역, 5,000만원이하 벌금

제정배경

최근 유통시장 개방과 더불어 다양한 판매방식이 개발되고 있는 바, 그중 물의를 빚고 있는 방문판매, 통신판매 및 다단계판매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991. 12. 3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적용제외 대상

농·수·축·임·광산물로서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아니한 것

의약품

보험·유가증권·어음·채무증서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제조 또는 제공되는 것

방문판매

가. 계약

방문판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자신의 성명과 상품의 내용을 밝혀야 한다.

상대방이 계약의사를 밝혔을 경우 방문판매자는 계약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계약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판매가격·대금지급방법·철회방법·계약금·계약해제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하며, 계약의 철회와 해제에 관한 사항은 붉은 색으로 기재하여 테두리를 쳐야 한다.

나. 계약철회

원칙적으로 방문판매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그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반송하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된다.

다음의 경우는 철회할 수 없다.

·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 사용자가 종업원과 거래하는 경우

철회권이 행사된 경우 상품과 그 대금을 서로 반환할 수 있으며,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방문판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방문판매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통상의 사용료에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을 넘지 못하며, 지연손해금은 연 25% 이내의 범위안에서 정해야 한다.

통신판매

통신판매광고에는 상품의 종류, 판매가격, 대금지급방법, 상품인도시기, 송료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허위광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통신판매자가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달받고 상품을 인도하기 전에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승낙여부를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 승낙하는 경우 : 상품의 인도시기를 통지

· 거절하는 경우 : 거절사유와 이미 받은 대금을 즉시 반환하겠다는 뜻과 그 반환방법을 통지

다단계 판매

가. 계약

다단계판매라 함은 자기회사 제품을 구매한 사람을 판매원으로 활용하여 또 다른 구매자를 끌어들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다단계판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이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단계판매자(또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한 자)의 주소와 성명, 상품의 종류, 판매가격, 대금지급방법, 다단계판매에 따른 이익 및 부담, 철회방법, 계약금, 계약해제 사유 등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단계판매계약의 철회 및 해제에 관한 사항과 다단계판매계약에 따른 이익 및 부담에 관한 사항은 붉은색으로 기재하여 테두리를 쳐야 한다.

다단계판매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되, 계약서에는 철회권 행사에 관한 서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단계판매광고에는 다단계판매자(또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한자)의 주소와 성명, 상품의 종류, 판매가격, 다단계판매에 따른 이익 및 부담, 계약금, 철회방법, 계약해제사유 등을 명시해야 한다(허위광고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나. 계약철회

원칙적으로 다단계판매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는 그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내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된다.

철회권이 행사된 경우 상품과 그 대금을 서로 반환하도록 하고,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다단계판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다단계판매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방문판매의 경우와 같다.

다단계판매계약의 내용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는 것보다 구매자에게 더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피라미드식 판매금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자신의 권유에 의하여 순차적·단계적으로 가입한 자 중 자신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가 아닌 다른 가입자가 행한 판매실적에 의해서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른바 피라미드식 판매)은 금지된다.

♣ 생활법률